

“ 연대의 끈 끊지 말고 단결해 자본과 싸우자 ”

한국지엠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 “함께 살자는 원칙 움켜쥐고 싸운다”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래 일자리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12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은 새내하청업체가 많은 공정에 정규직을 대신 집어넣는 ‘인소싱’을 강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지키지 않고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1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



정규직 해고를 반대하고, 총고용 보장을 결의하는 사업목표를 결정했다”라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인소싱 추진은 금속노조를 우습게 보는 행위다. 회사와 관리자인 창원공장 본부장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인소싱 합의는 분명한 잘못이고 폐기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연대 끈이 끊어지기 전에 수습방안을 찾아보자”라며 “차이를 극복해 하나가 되

자, 지치고 힘들어도 함께 극복하자. 연대투쟁이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를 생각하며 싸우자”라고 촉구했다.

김희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인소싱 합의로 40여 노동자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지만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단기계약직인 여섯 명의 신규조합원도 가입했다”라며 “함께 살자는 원칙을 움켜쥐고 서로 희망이 되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경남지부, 인천지부, 구미지부 조합원, 전국 각지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회 마무리에 앞서 준비한 노래를 선보이며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 불법파견·노조파괴는 인정, 노동자 국회의원은 부정

22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유성기업 유시영 징역1년2개월,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대법원이 12월 22일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유시영 회장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조합원의 의 원칙을 빼앗았다.

대법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

어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당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당한 사업주의 실형을 확정하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유시영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기봉 아산공장 공장장과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도 징

역 8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과 실행을 불법이라고 최종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윤종오 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관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윤종오 의원은 현 대지동차지부 조합원이다.

“중형조선소 살리라”, 조합원 2천 명 창원 집결

중형조선소 살리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성동조선 90%, STX조선 50% 조합원 장기 휴업상태

금속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창원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2월 21일 경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영남권 조합원 2천여 명은 모여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하며 중형조선소 노동자의 요구를 시민에게 알렸다.

행진에 앞서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과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경남도청 앞 연단에 올라 수주영업 보장과 RG발급 재개에 국책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외쳤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성동조선과 STX조선 조합원들은 사실



상 고공농성이나 천막농성이나 디름없는 차가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성동조선은 90%, STX조선은 50% 이상의 조합원이 장기 휴업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부와 국책은행이 수주를 방해하고 RG발급을 거부하는 기막힌 현실이다”라며 “이 명박근혜 정권이 조선노동자를 죽이더니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깎겠다고 덤빈다”라고 지적했다.

김 아무개 STX조선지회 조합원 가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가 잘사는 나라를 기대했지만 6개월 만에 기대가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데니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자를 정치 이벤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조선소에서 지은 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고 바다를 헤쳐 나오는 상징 의식을 벌였다. 중형조선소 지회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이 참가 대오 사이에서 배를 끌고 나오자, 소리꾼과 조합원들은 ‘중형조선소 살리라’는 요구를 함께 외쳤다.

“정몽구 일가는 현대라이프생명지부 노조탄압 중단해야”

현대기아차그룹사대표자, 투쟁 연대 성명 발표... “구조조정 사측이 현대기아차 퇴직연금 운용할 수 있냐”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동차그룹사 지부, 지회 대표자들이 12월 22일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보험설계사 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자들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조합을 계속 탄압하면서 연대 행동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다. 정몽구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

대기아차그룹사 14만 노동자의 퇴직연금 1조8천억여 원을 운용하는 회사다.

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지회 대표자들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부실경영과 노조탄압, 일방 구조조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10월 1일부터 일방으로 5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

면 해척(해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2천여 명의 설계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600여 명으로 줄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를 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사측은 이런 사회 분위기는 이렇듯하지 않고 경영부실에 따른 적자를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